

# 韓國繪畫에 나타난 建築的 行態構成\*\*

—眞景山水畫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rchitectural act and attitude by Korea landscape painting

- Focus on the real view landscape painting -

조 남 두\*

이 재 국\*\*

CHO, NAM-DU

LEE, JAE-KOOK

### Abstract

As we know usually architecture of Korea landscape painting inside , pavilion(Jung-ja) and many-storied building(Ru-gak) have painted mainly. But besides general building that home, mountain fortress wall, temple, royal palace was expressed by a real view landscape painting.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basis that can understand well tradition architecture by Korea landscape painting. To achieve this goal, Even if it is same kind of building, a lot of differences become by material of roof, position of building, expenditure of building. Division of inside and outside is precious data that can know life physiognomy of general peoples. In Structural side, Expression of fabrication and value as data that can know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plane are important.

키워드 : 한국회화, 진경산수화, 건축행태

keywords : Korea landscape painting, A real view landscape painting

### 1. 서 론

#### 1-1. 연구목적

한국건축에 있어서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단하게 이어져 왔고 그 결과물 또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통건축은 시각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라는 양면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상의 전반을 이루는 배경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는 현존하는 건축 및 문헌, 회화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회화는 특별하게 건축도(建築圖)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건축도(建築圖)를 통한 연구로는 그 시대의 기술사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sup>1)</sup>. 이러한 기술사학적 연구 외에 그림을 통한 건축의 개관(概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수화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산수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물의 세부분임을 알 수 있다.

\* 정회원, 동국대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인천전문대 건축과 겸임교수

\*\* 정회원, 공학박사, 서일대학 건축과 부교수

\*\*\* 본 논문은 2004년도 서일대학의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1) 건축도와 관련한 연구로는 건축도화의 본질적 가치제기(한재수, 한국건축사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87)와 화법의 양식고찰(안휘준, 한국의 궁궐도(동궐도), 문화재관리국, 1991) 및 영건의궐의 건축도 특성 고찰(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궐의 건축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회화 중 산수화를 통하여 그속에 나타나는 건축의 종류 및 특성, 배치등을 조사 분류하여 그림속에 나오는 전통건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분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회화 속에 나타나는 건축에 관한 자세한 세부에 대한 내용은 산수화의 특성상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건축의 구성요소<sup>2)</sup>중 1차 구성요소로서 배치와 기둥 2차 구성요소로서 대문, 정자, 석단, 마당, 담장 등은 여러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다. 현존여부와 관계없이 문헌(文獻)과 도록(圖錄)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도판(圖版)과 작가(作家)를 진경산수화가 가장 활발했던 조선시대 중심으로 분류·분석해 가기로 한다.

#### 1-3. 연구내용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회화의 발전이 가장 활발했던 시

2) 주남철(한국건축의장, 1993, 일지사)은 한국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1차구성요소와 2차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1차구성요소는 배치와 평면, 기단, 초석, 기둥, 가구, 벽체와 창호, 공포대, 지붕, 바닥, 천장을 들고 있고, 2차구성요소로는 난간, 대문, 굴뚝, 식물, 샹터와 도랑, 석루조, 다리, 연못과 정자, 석단, 화계, 석계, 징검돌, 돌길, 식재, 마당, 담장, 색채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에 의해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표 1. 조선시대서화가

시대	작가	건축물사레작가
조선초기	최항,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안평대군, 안견, 최경, 안귀생, 배린, 석경, 이배린, 이상좌, 양성지, 성종, 양평손, 신잠, 이암	강희안, 안견, 양평손
조선중기	정세광, 신부인, 김지, 이불해, 윤인걸, 함윤덕, 이정근, 이승효, 이홍효, 최립, 이정, 한호, 이경윤, 이영윤, 윤의립, 허균, 이신홍, 윤정립, 이계호, 이정, 이경, 윤선도, 조속, 허목, 김명국, 송시열, 이우, 김창업, 윤두서, 유덕장	이정근, 이홍효, 이정, 이경윤, 이영윤, 윤의립, 이징, 김명국
조선후기	정선, 이재, 이익, 조영석, 진재해, 영조, 김두량, 신경, 변상벽, 이광사, 심사정, 강희언, 최복, 강세황, 정충업, 김유성, 신한평, 홍대용, 서직수, 박지원, 이덕무, 김응환, 이인문, 이채, 김홍도, 유득공, 박제가, 정조, 김득신, 김석신, 신윤복, 이명기, 윤세홍, 임득명, 장한중, 신위, 이재관, 권돈인, 김유근, 김정희, 강이오, 조희룡, 조정규, 신명준, 신명연, 허유, 남계우, 김창수, 김수철, 이하응, 백은배, 전기, 유숙, 조중묵, 유재소, 오경석, 정학교, 홍세섭, 안건영, 장승업, 양기훈, 채용신, 우상하, 황현, 정대유, 지운영, 김응원, 조석진, 민영익, 안중식, 장지연, 오세창, 이도영, 고희동, 김은호, 정인보, 박승무, 이상범, 변관식, 노수현	정선, 심사정, 강희언, 최복, 강세황, 김응환, 이인문, 김홍도, 김득신, 김석신, 신윤복, 이재관, 조희룡, 김수철

기로서 도화서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유능한 많은 화원들이 배출되어 계화의 발전도 지속력 있게 유지되어 왔다. 여기에는 각종의 건축도가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묘사되는데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행사 기록성에 치중한 건축도화가 그려지나, 조선후기에 이르러는 행사기록도화 및 조영기록 도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더욱이 조선후기에 대두된 실학사상 및 서양화법은 건축도(建築圖)를 실용적 형태로 발전을 가속화시킨 영향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산수화는 고려 때 이미 실용화로서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 감상용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작가들도 화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가들도 유명세를 탄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산수화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관조와 휴식의 대응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으며 수양의 한 방법으로 생각되기 시작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자연뿐 아니라 사람 및 건축물도 함께 그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에 그려진 그림이라도 여러 번 보고, 또 본 그대로를 옮겨야 하는 특성상 건축물에 관한 형상도 그 시대 산수화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서화가중 진경산수화를 그린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산수화 속에 나타난 보편적인 건축물의 행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회화

2-1. 한국의 산수화

산수화는 산과 언덕, 바다와 강, 풀과 나무, 구름과 안개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활발하게 산수화가 그려져 인물화와 더불어 회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천봉만학(千峰萬壑)’이나 ‘장강만리(長江萬里)’와 같은 대자연의 모습을 일정한 화폭에 담아 기운이 생동하도록 표현해야 하므로 회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서양의 자연주의 예술이 자연의 일부로서 인체(人體)를 최고의 미(美)로 보았음에 비하여, 동양회화는 자연 가운데 산수자연(山水自然)이 최고의 미(美)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sup>4)</sup>. 더구나 동양에서는 산수화가 단순히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의 자연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또한 산수화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의 화풍의 변천을, 제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지표자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수화의 시작도 삼국시대 고구려의 고분벽화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 볼 수 있다. 산수화와 관련한 요소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지금까지 연대가 밝혀진 최고의 것은 영락18년(永樂18, 408)의 연기(年紀)가 있는 평남 강서군 덕흥리 고분 벽화이다.

이 고분의 수렵도 중에 산의 모습이 보인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산은 단순히 상징적인 모습이었으나 통구 무용총의 수렵도에서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6세기 말부터 7세기 중엽까지의 기간에 한국의 산수화는 고구려의 강서대묘, 내리 1호분, 진파리 1호분 등에 그려진 산과 나무의 그림들을 통해서 보여주듯 진일보했던 것이다. 이러한 발달상은 백제의 산수문전(山水紋塼)에서 더욱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이러한 전통이 통일신라시대에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표2)

다른 회화와 마찬가지로 산수화도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실용적인 목적을 띤 그림의 배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순수한 감상을 위한 산수화가 자주 그려지게 되었다. 남·북송 및 원과

3)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2000, (주)시공사, p33.

4)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1999, 일지사, p189.

무용총 수렵도	강서대묘 산악도	내리1호분 산악도	진파리1호분 수목도	산수문전
				

의 밀접한 교섭을 통해 송·원대의 몇 가지 산수화풍이 전래, 수용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대(五代) 및 북송대(北宋代) 산수화를 종합하여 대성시킨 괘희의 그림이 그의 생전에 고려 조정에 전해졌던 사실은 고려 및 조선 초기의 산수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 나라에 있는 산천을 화폭에 담는 실경산수의 전통이 형성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5)</sup>.

### 2-2. 조선시대 산수화

조선왕조시대에 이르러 산수화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왕공사대부와 화원들 중에 산수를 전문으로 그린 사람이 많았다. 특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 ‘취재조(取才條)’에 의해 확인되듯이 조선시대에는 화원을 뽑을 때 죽(竹)을 1등, 산수(山水)를 2등, 인물(人物)을 3등, 화조(花鳥)를 4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에 산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진(御眞)의 제작을 맡는 인물화 쪽보다도 오히려 산수를 더 중요시했음을 보면 수많은 화원들이 산수에 뛰어남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sup>6)</sup>

조선초기(1392~약1550)에는 북송대(北宋代) 괘희 화풍, 남송대(南宋代) 원체 화풍, 미법산수 화풍, 명대 절과 화풍 등을 수용하여 한국적 화풍을 만들어 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화가들 중에서도 특히 괘목할 만한 인물이 안견이다. 그는 괘희와 화풍을 토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는데, 그 특징은 일본의 텐리대(天理大)에 소장되어 있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와 그 밖의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를 비롯한 전창작품들<sup>7)</sup>에 잘 나타나 있다.

5) 고려시대의 畫員 李寧이 그린 <禮成江圖>와 <天壽寺南門圖>, 필자미상의 <晉陽山水圖>, <金剛山圖>, <松都八景圖>등이 그 좋은 예이다.

6) 양성지는 『訥齋集』에서 종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대그림을 1등, 산수화를 2등하는 식으로 하느냐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圖畫院도 圖畫署란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보아 이시기 즉, 조선초기에는 중국풍의 화풍을 많이 답습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7) 안견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으로는 이외에 <瀟湘八景圖>, <赤壁圖>, <雪天圖>등이 있는데 사시팔경도에는 8폭의 그림 모두에 건물이 나온다. 여기에 묘사된 건물은 약간은 중국풍의 요소를 띠고 있으며, 주로 정자와 투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형태는 사모지붕, 팔각지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중기(약1550~약1700)에는 안견파의 화풍을 계승하는 이외에 강희안의 화풍을 이어 김시, 이경운, 김명국 등이 명대 절과 화풍을 토대로 다소 거칠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산수인물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시대에는 소극적이거나 남종화법이 전개되고 수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한국적인 산수화풍이 발달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후기(약1700~약1850)이다. 물론 윤두서나 김두량과 같이 전통에 보다 비중을 두는 화가들도 있었다. 또한 강세황을 비롯한 많은 선비화가들이 남종산수화를 즐겨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대 산수화의 진면목은 역시 정선과 그의 추종자들이 발전시킨 소위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에서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명산대천을 소재로 택하고 남종화법을 소화한 화풍을 구사하여 이룩한 진경산수는 풍속화와 함께 이 시대 회화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산천을 직접 눈앞에 대하듯 정겨운 진경산수화의 동향은 조선말기(약1850~1910)에 접어들면서 김정희 일파의 대두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점차 시들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적어도 외형적인 측면에서 남종산수화가 우리의 화단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 2-3. 眞景山水畫

조선 후기에 산천을 소재로 그린 산수화로 진경(眞境)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새로운 화풍을 창출한 가운데 발달하였다. 종래의 형식화된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을 통해 고의(古意)와 이상을 찾고자 한 당시의 사상적 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한국의 산천을 주자학적(朱子學的) 자연과 접목시키고자 한 문인 사대부들의 자연친화적 풍류의식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의 소재는 전대와 마찬가지로 명승명소(名勝名所)와 별야유거(別墅幽居)·야외아집류(野外雅集類)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산과 관동지방, 한양 근교의 경관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가 새로운 장르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정선(鄭敎)에 의해서이며, 그의 일파에 의해 더욱 융성하였으나, 조선 말기 김정희 등에 의해 만연했던 남종 문인화에 의해 그 세가 꺾이고 만다.

화풍은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의 전통에 새롭게 유행하

기 시작한 남종화법(南宗畫法)을 결들인 것으로, 이는 정선(鄭敾)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는 실제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산천의 특색을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그려 진경산수화풍의 정형(定型)을 수립한 것이다. 정선의 화풍은 강희언(姜熙彦)·김유성(金有聲)·최북(崔北) 등으로 계승되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새로 등장한 강세황(姜世晃) 등의 화가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형식화된 당시의 진경산수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제 경관과 부합한 사실적인 기법을 강조하였는데, 그들의 이러한 화풍은 김홍도(金弘道)에 의하여 구도와 필법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다시 이인문(李寅文)·이재관(李在寬) 등으로 계승되었다.

표 8 산수화속 건축의 종류와 사례

구분	사례	비고
亭子	이인문 하경산수도 등	초가지붕
	김수철 하경산수도 등	기와지붕
樓閣	이인문 누각아집도 등	단층누각
	윤의립 산수도 등	중층누각
民家	거연당 산수도 등	초가지붕,
	김석신 도봉도 등	기와지붕 군락(마을)
寺刹	최북 표훈사 정선 해인사, 부석사 등	사찰의 배치
城門	이정근 산수도	산성
宮闕	안중식 백악춘효도	경복궁 광화문

표 9 조선시대 작가별 작품 중 건축사례작품

번호	작가	작품	비고
1	강세황	벽요청서도	초가(내부)
2	강희언	인왕산도	민가(군락)
3	거연당	산수도	민가(초가)
4	김득신	대장간 파적	민가
5	김명국	설경산수도	민가
6	김석신	도봉도, 금호완춘도	민가
7	김수철	하경산수도	정자, 민가
8	김응환	혈성루	탑, 루, 민가
9	김홍도	만월대계회도, 삼공불환도, 방야독서도	대, 민가(사대부)
10	신윤복	무무 산수도	민가(초가)
11	심사정	축간도권	탑, 중층누각
12	안견	몽유도원도	민가
13	양팽손	산수도	누각, 민가, 정자
14	윤의립	산수	강변민가, 중층누각
15	이경윤	산수도	탑, 민가
16	이인문	강산무진도권 누각아집도 하경산수도	누각
17	이재관	산거도	초가
18	이정근	산수도	성
19	이정	산수	중층누각
20	이징	니금산수도 산수	정자, 중층누각
21	정선	금강전도 인곡유거도 청풍계도 하경산수도, 박연폭, 금강전도, 해인사도	민가, 정자, 사찰
22	정수영	하경산수도	초가
23	조희룡	매화서육도	민가
24	최북	수각산수도, 표훈사도, 공산무인도	누각, 사찰, 정자
25	조영석	설중방우도	민가(초가)
26	김유성	낙산사	사찰
27	임득명	서행일천리-표제, 화장추색도, 박연범사정도, 평양도, 백상루도	사찰, 루, 민가
28	김창수	추경산수도	농가
29	김수철	계산적적도, 산수도, 야정대운도	정자
30	전기	계산포무도, 매화초육도, 미법산수도	민가
31	허유	죽수계정도, 선면산수도	정자, 민가
32	유숙	세검정도, 계산추갯도	누각, 민가
33	장승업	방황공망산수도, 귀거래도	민가
34	안중식	백악춘효도	궁
35	우상하	선면산수도	민가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는 정선과 김홍도와 이외에 심사정(沈師正)·이인상(李麟祥) 등의 문인화가들도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은 남종화법과 함께 문인풍의 격조 높은 화풍을 바탕으로 색다른 개성미를 보여주면서 이 시대 진경산수화의 다양한 흐름에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진경산수화는 실경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려 하였던 근대지향적인 의의를 지니면서 조선 후기의 회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다시 근대 및 현대에 생긴 어떠한 특정 경관이 아닌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그린 사경산수화(寫景山水畫)로 그 전통이 계승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선(鄭敼)의 《인왕재색도(仁旺齋色圖)》를 비롯하여 강희언(姜熙彦)의 《인왕산도(仁王山圖)》, 김석신(金碩臣)의 《도봉산도》, 이인상(李麟祥)의 《구룡연도(九龍淵圖)》, 강세황(姜世晃)의 《송도기행명승도첩(松都紀行名勝圖帖)》, 김홍도(金弘道)의 《사군첩》, 이인문(李寅文)의 《단발령금강전도(斷髮令金剛全圖)》, 조정규(趙廷奎)의 《금강산병풍》 등이 있다. 진경산수화는 명승(名勝)이나 고적(古蹟) 등 실제의 경치를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조선시대에는 진경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진경산수라고 하기도 하였다. 동양의 수묵 산수화는 실제의 경치를 사생에 의해 그리기보다는 관념적 이상향의 산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에도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른 화풍의 산수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실제하는 산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인들의 그림을 방(倣)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당시에는 선인들의 그림이나 화보를 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에도 이녕(李寧)이 <예성강도(禮城江圖)>와 <천수사남문도(天壽寺南門圖)>, <금강산도(金剛山圖)> 등을 그린 기록이 있어 실경산수화가 그려졌을 것이나 남아 있는 작품은 없다.

### 3. 산수화 속에 나타난 건축행태

#### 3-1. 건축의 종류

산수화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형태는 크게 정자(亭子), 누각(樓閣), 민가(民家), 사찰(寺刹), 성문(城門), 궁궐(宮闕)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분하면 정자(亭子)는 이인문의 하경산수도에서 보이는 초가지붕과 김수철의 하경산수도에서 보이는 기와지붕으로 나뉘어 지고, 누각(樓閣)은 이인문의 누각아집도와 같은 단층과 윤의립의 산수에서 보이는 중층의 누각, 민가(民家)는 거연당의 산수화에서 보이는 초가와 기와 그리고 김석신의 도봉도에서 보이는 군락, 즉 마을로 이루어진 그림 등이 있고, 사찰(寺刹)은 최북의 표훈사, 정선의 해인사, 부석사, 그리고 석불사 등 전체적인 배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

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성문(城門)은 이정근의 산수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성문위에 누각을 세워 산성에서 성문건축이 일반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경복궁과 차이가 있는 궁궐(宮闕)은 안중식의 백악춘효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화문 앞의 해태와 어도까지를 자세히 그려놓음으로써 지금의 배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의 산수화는 자연풍경을 중시하여 자연을 화폭에 담으려 노력했고, 동시에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건축도 동시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산수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건축은 풍류(風流)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다수이며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며, 궁궐이나 성문과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2. 내부와 외부

산수화속 건축으로 내부와 외부를 함께 보이는 사례는 안건의 몽유도원도, 강세황의 벽오청서도, 김득신의 대장간, 파적, 신윤복의 산수도, 이인문의 누각아집도, 이재관의 산거도, 정선의 인곡유거도, 조의룡의 매화서옥도 등 대단히 많은 사례가 있다. 이중 특이한 점은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부에 사람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마당을 보는 식으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내세워 그림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적으로 세부적인 면을 보자면 그림 표현에 있어서 기둥이 각형인지 원형인지는 구분이 모호하나 지붕의 표현, 즉 초가인지 기와인지와 부개, 즉 덧댄 지붕의 표현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서옥(書屋)이라 할지라도 지붕의 표현은 대부분 맞배지붕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림의 특성상 쉽게 그리기 위함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맞배지붕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건물의 규모나 특성상 아마도 후자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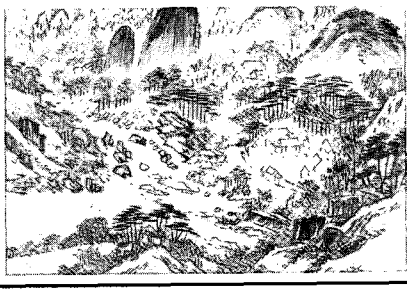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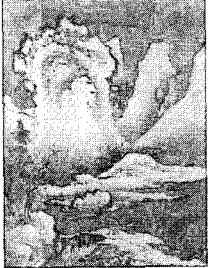



그림 1 강세황  
벽오청서도



그림 2 조희룡 매화서옥도

표 10 건축행태에 따른 산수화

정자	누각	민가
		
사찰	성문	궁궐
		

3-3. 구조

김명국의 설경산수도에 보이는 초가의 측면은 비교적 그 가구 구조가 세밀히 나타난 편이다. 언뜻 보기엔 오량 집으로 보이나 구조상 앞 뒤 기둥에 주심도리를 얹고 보를 건너지른 다음 보 중앙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올리고 양쪽으로 서까래를 얹은 3량집이다. 부엌으로 추측되는 공간의 벽면에 수직살창이 있어 초가삼간의 구조를 추측하게 하는 그림이다. 이인문의 누각아집도의 경우 기단과 석계, 누각으로서의 구분과 지붕의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전면 3칸, 측면 3칸의 정자로 전체 평면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T자형 평면이 아닌가 추측된다. 팔각지붕의 처마 곡선이 약간은 어색하고 공포의 표현은 생략되어 있으나, 다포형식의 매우 화려한 구조를 가진 누각임을 알 수 있다. 치미의 표현도 자세한 편으로 일반건물이 아닌 특수한 목적에 의한 특권계층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윤복의 무무에서 보이는 일반 민가로 생각되어지는 건축에서는 지붕기와 밑 서까래가 등근 것이 아닌 각진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민가가 각서까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인문의 하경산수도에서 보이는 정자의 경우 초가로 지붕을 이은 사모지붕임을 알 수 있고 지붕의 꼭대기 부분의 돌기는 법주사 원통보전에서 지붕위에 얹은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탑에서의 상륜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조적인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의미로

서 일반 정자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일본 범룡사의 몽전의 경우도 평면은 팔각이고 지붕형태도 팔각지붕이지만 지붕꼭대기의 장식은 산수화에 나타나는 부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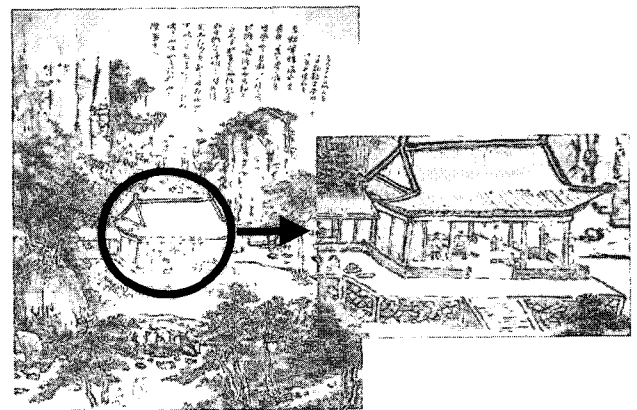


그림 3 이인문의 누각아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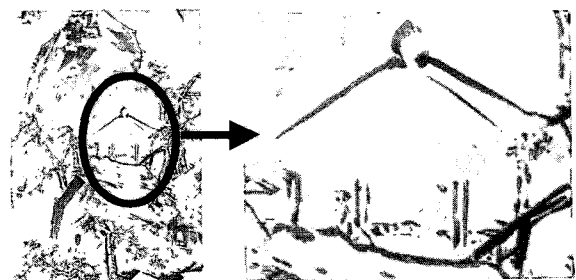


그림 4 이인문의 하경산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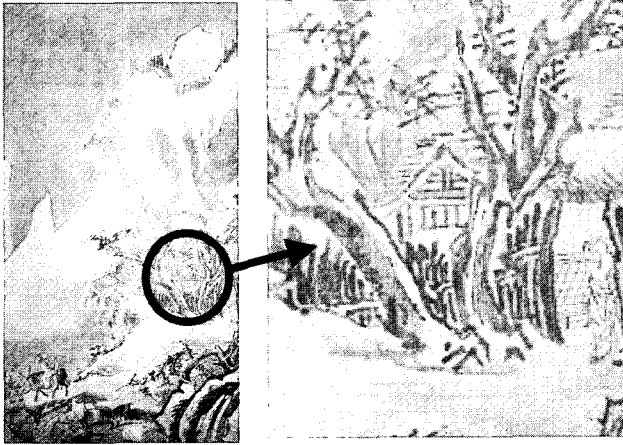


그림 5 김명국의 설경산수도



그림 6 신윤복 무무



그림 7 김석신 도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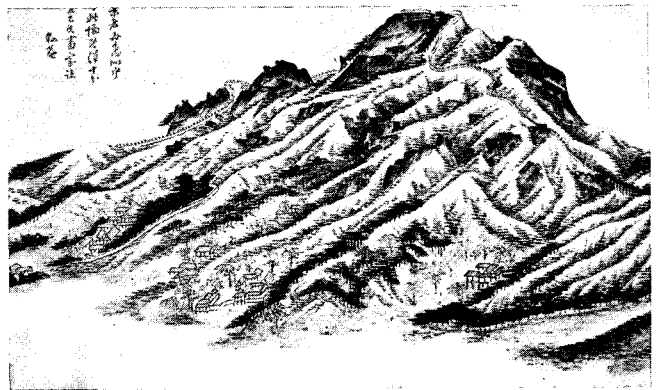


그림 8 강희안 인왕산도

### 3-4. 배치

김석신의 도봉도에 나타나는 건축은 지붕과 기단, 대문과 담장 등 외부적인 요소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일반 민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상류층이 기거하는 별야(別墅)의 한 종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림이다. 전체배치는 가운데 주건물을 다른 부속건물에 위싸고 있는 형태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솟을대문을 통과하면 앞마당이 있고 뒤쪽으로도 건물이 층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당이 있을 법하다. 부속건물이 맞배지붕인 반면 주건물은 팔작지붕으로 타 건물과의 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기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풍경을 고려한 배치가 아닌가 싶다.

이와는 달리 강희안의 인왕도에 나타나는 건축은 균락의 형태로 그려져 있고 왼쪽에 있는 건물군이 팔작지붕으로 이루어져 오른쪽의 맞배지붕으로 형성된 건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의 왼쪽 부분이 실제 더 좋은 위치이고 이곳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4. 결론

산수화속의 건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정자와 누각이 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민가, 성문, 사찰, 궁궐 등 건축도로서의 목적이 아닌 일반감상용으로서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건축이 묘사된 회화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로서 그 가능성을 유추해 보고 조사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로 비록 산수와 인물중심의 그림이지만 그 속에 나타나는 건축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붕의 재료, 건물의 위치, 건물의 용도에 의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건축공간의 사용이 담과 마당과 내부를 사람이라는 媒介體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가구의 표현 및 평면의 구성 및 배치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면 외에도 배치나 전각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앞으로 꾸준히 밝혀 나가야할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원용,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3
3.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발언, 2000
3. 이동주,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9
4. 안휘준,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5.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9
6. 최순우 외, 한국미술전집12 회화, 동화출판공사, 1973
7. 이경준, 시각틀과 동양화 구도론에 의한 한국 전통건축 공간분석, 서울대석론, 1998